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37차 국제학술대회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자리를 빛내 주시는 내외 귀빈들께 학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매년 상반기에 해외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현지의 한국어교육자들과 한국어교육 경험을 공유해 왔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학술대회는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자매학회인 국제한국어통번역학회,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나시오날대 한국어학과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더 풍성하고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학, 세종학당, 사설기관, 고등학교에서 폭넓게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한류를 기반으로 한국어 학습의 열기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수한 한국어교원의 확보, 현지화 교재 개발, 학습자 변화에 따른 교육의 다양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어 교원을 위한 연수와 학술 연구 발표를 담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인도네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5개국 30여 명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주제 특강을 맡아주신 가자마다대 수라이 아궁 교수님, 주제 토론을 준비해 주신 한국외대 임형재 교수님과 상지대 장향실 교수님, 그리고 나시오날대 피트리 무티아 교수님, 인도네시아대 예바 라티파 교수님, 인도네시아 국방어학원 박경재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 발표는 이곳 현장에서 3개의 분과, 온라인 줌으로 1개의 분과를 운영합니다.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학회원들께도 인도네시아 학술대회장의 열기를 전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적극 지원하고 응원해 주신 국립국어원, 세종학당재단,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KF 자카르타 사무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이곳까지 함께 달려와 후원해 주신 도서출판 하우, 한글파크, 공앤박에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학술대회 준비에 몇 달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오지혜 학술대회 조직위원장님과 학회 임원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회장 이미혜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국제한국어문화학회가 주최하고 국제한국어문화학회, 국제한국어통번역학회 그리고 NASIONAL 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 37차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 언어와 문화의 융합과 발전'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한국어교육 관계자 및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술대회를 위하여 귀빈으로 참석해 주신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님 /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님과 최현수 한국국제교류재단 자카르타 사무소장님에게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여러 해 동안 한국 언어와 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노력해 온 국내외 한국어 교육자들과 한국문화 교육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멀리 대한민국과 영국, 베트남, 태국, 뉴질랜드에서도 학술대회 발표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과 또 저희 인도네시아에서도 특강 및 연구 발표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언어와 문화의 융합과 발전을 논의하고 분석하여 보다 통합적이며 효과적인 한국 언어 및 문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내외 한국어 교육자들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 지리라 기대하는 바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또 국내 교육 현장에서 한국 언어와 문화를 연구하고 우리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데에 정열을 쏟고 있는 한국어 교육자들과 한국문화교육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침병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같이 힘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얻게 되는 새로운 교육 정보가 현장에서 한국어와 문화를 교육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시오날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과장
Fahdi Sachiya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장 장소원입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37차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의 대표 주자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학술대회에 축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와 나시오날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의미가 더 큽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여러 지역의 한국어 교육자가 귀한 발걸음을 한 오늘의 자리는 동남아에서의 한국어와 문화, 이들의 융합과 발전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자마다대 수라이 아궁 교수님의 주제 발표와 피트리 무티아 교수님, 예바 라티파 교수님, 박경재 교수님, 장향실 교수님의 토론에서 인도네시아의 현황에 기반한 주요 교육 쟁점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국제학술대회 발표에는 국립국어원의 국외 한국어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전망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어원은 각국, 각 지역의 문화만큼이나 다양하게 세분화된 한국어교육의 현장을 이해하면서, 다채로운 요구들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어원의 노력과 이해는 국외 교원 대상의 맞춤형 교육과정과 평가 내용 개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토론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들이 한국어교육의 큰 현장인 동남아시아의 한국어교육을 더욱 풍성하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수교 50주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학, 고등학교, 사설학원 등 사회 전반에서 한국어교육이 확산되는 시기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임원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 한국어 교원의 역량을 높이고, 교육자 간 정보를 공유하며, 한국어를 구사하는 인재 양성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오늘의 자리는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발전뿐 아니라 양국 간의 상호문화교류에도 큰 토대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이미혜 회장님과 학회 임원진들, 그리고 나시오날대 한국어학과 교수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립국어원 원장
장소원

축 사

안녕하십니까?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이해영입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37차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귀한 자리에 영상으로나마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신 이미혜 회장님을 비롯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어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채택되었고,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학습하는 학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어 열풍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어가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가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 언어와 문화의 융합과 발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언어는 문화의 소산 이면서 문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입니다.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이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세종학당재단도 전 세계에서 증가하고 다변화하는 학습 수요에 대응해 왔습니다. 재단은 2024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예비 한국어교원 파견 사업을 비롯해 생성형 AI 모델로 진화 예정인 ‘AI 한국어 선생님’ 공개, 다양한 학습 수요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2022년 개발된 국내 최초 단계적 적응형 테스트 iSKA와 가상 세계로 학습 공간을 넓힌 ‘메타버스 세종학당’의 확대 시행 등에 주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의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AI 기반 자동 채점도 쓰기 시험에 이어 말하기 시험에서도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전년 대비 44% 증가로 오프라인 학생 수 10만 시대를 열었고, 2023년에는 온라인 수강생이 전년 대비 44%의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작년 한 해 온오프라인 수강생 통합 20만 명 시대에 돌입한 세종학당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해외 세종학당의 성장과 발전에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귀한 역할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학회 관계자분들을 비롯한 학술대회 참가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37차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류와 세계 한국어 보급에 기여하고 계신 참가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이해영

축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제37차 국제학술대회 개최가 아세안의 중심 국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리게 되어 한국문화원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한국문화의 인기와 더불어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과 서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한국어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곳 인도네시아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한국학과가 4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고, 11개의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고등학교에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과목이 채택되어 많은 학교들이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이 의무화되면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서남아시아의 고용허가제 MOU 국가들에서 한국어는 기회의 땅에 가기 위한 외국어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서점가에는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한국문학 도서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한국문화, 한국어의 인기는 문학한류 붐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은 한국어 확산을 위하여 세종학당 운영 지원, 인도네시아 학교의 한국어 교과목 채택 확대, 대학 한국학과들과 협력,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으로 번역, 말하기, 토론 부문의 한국어 경연대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자카르타 학술대회가 인도네시아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어 교육을 보다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의 한국어, 한국학 학자들과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육자들의 만남을 통해 한국어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이미혜 학회장님을 비롯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학회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장
김용운

축 사

안녕하십니까.

KF자카르타사무소장 최현수입니다.

2024 INK 제37차 국제학술대회가‘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 언어화 문화의 융합과 발전’제하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어 보급 확산 및 교육 진흥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한국국제교류재단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991년 설립 이후, <대한민국 대표 공공외교> 추진 기관으로서 한국과 세계 각국과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우호·친선을 증진하기 위해, 해외 한국학 진흥, 국제협력 네트워크, 문화예술 교류협력 등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한국학·한국어 진흥 사업은 재단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해외 대학에 교수직 설치, 객원교수 파견, 글로벌 e-School 등을 통해 한국 관련 강좌 운영을 지원하고, 개인에게는 차세대 지한 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장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해외 한국학·한국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단은 지금까지 20개국 100개 대학에 총 161석의 한국어와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하였고, 매년 240여 개 해외 대학에 1,370개의 한국 관련 정규 강좌 운영을 지원하여 3만5천 명 이상의 수강생이 한국에 대한 심층 이해와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전반부의 문화현상중 하나로 한류는 전 세계를 휩쓸었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는 날씨만큼이나 한류가 매우 뜨겁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K-POP, K-드라마, K-Food가 폭넓은 관심을 받는 등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문화와 언어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언어는 문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한국어 전공과정 개설, 교수요원 확충, 전문가 양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관계당국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신속히 강화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INK 국제학술대회가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시기적절하며, 향후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동남아 지역내 한국어 및 한국학 강좌 개설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 본 행사에 참석해주신 한국과 동남아지역의 학자, 교육자,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학술행사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이미혜 회장님을 포함하여 국제한국어언어문화학회, 국제한국어통번역학회, 나시오날대학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F 자카르타 사무소장
최현수